

2018 전주비빔밥축제
25~28일 한옥마을서

'신나게 비비Go~ 맛나게 즐기Go~'

저소득 에너지취약계층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국립무형유산원서도 개최
글로벌 프로그램 강화
시민참여 문화행사 확대
6개 분야 52개 프로그램 운영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를 대표하는 미식축제인 '2018 전주비빔밥축제'가 그 평년과 달리 다채롭게 펼쳐진다.

김양원 전주 부시장과 선거현 전주 비빔밥축제조직위원장은 16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축제의 주요프로그램과 특징 등에 대해 설명했다.

'비벼봐 신나게! 즐겨봐 맛나게!'를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올해 비빔밥축제는 6개 분야 52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예년보다 글로벌 축제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특히,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초청 마스터셰프 쿡킹콘서트에는 샌안토니오(미국), 가지안테프(터키), 마카오(중국), 츠루오카(일본), 청두(중국) 등 5개국 6개 음식창의도시 셰프들이 직접 참여해 각 도시의 요리를 선보이고, 실크로드 문명의 터키와 이란, 중국, 한국 등 4개국의 유네스코·실크로드 전문가들이 참여해 고대 음식문화의 경로와 가치를 분석하고 국제협력 사업을 발굴하는 유네스코 국제심포지움 '실크로드



2018 전주 비빔밥축제 기자회견이 16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실시된 가운데 안성철 총감독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음식'도 열린다.

또한, 올해는 장소가 오목교와 한벽문화관, 전주향교 등 전주한옥마을과 국립무형유산원 일원으로 옮겨지고, △식도라 전주여행 △신나는 쿡방 △버스킹 공연 △무형유산원 즐기 △전통혼례 등 시민참여 문화행사도 확대됐다.

여기에, △전주천 테마행사 △역새와 조형물공원 조성 △서각전시회 등 전주천의 풍광이 있는 문화축제프로

그램도 마련되는 것이 특징이다.

비빔밥축제의 백미로 손꼽히는 '35동 비빔밥퍼포먼스' 국립무형유산원 앞 전주천 서로로 옮겨 펼쳐진다. 행사장 메인에 위치하는 대형비빔밥은 전라도 개도 천년을 기념하기 위해 1,000인분으로 차려지며, 35동에서 준비한 각각의 비빔밥과 함께 행사장을 찾은 1만여명의 국내외 관람객들과 함께 나눌 예정이다.

또한, 해외유력언론에서 한국에서

음식으로 대적할 곳이 없는 도시로 소개된 전주의 손맛을 음식의 명인·명가·명소도 축제장에 직접 나와 관람객들과 만난다.

여기에, 독창적인 식기류와 유네스코 공예창의도시인 일본 가나자와·이천의 식기류 등 아름다운 테이블웨어도 만날 수 있다. 특히 가나자와시의 식기류 전시는 전주음식을 그 안에 담아내는 콜라보 콘셉트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끈다.

이와 함께, △다양한 미션 수행 후 얻은 재료로 비빔밥을 만들어 먹는 '비빔밥을 찾아라' △비빔밥의 3가지 유래에 대한 상형극 △어린이 1,000여 명이 요리사가 돼 비빔밥을 즐기는 '용기종기 비빔밥' 비빔문화공연 등이 펼쳐지며, 체험형 관광객 확대와 야간시간대 즐길거리 마련을 위해 드림퍼포먼스와 EDM파티와 토크콘서트도 새롭게 선보인다.

앞서, 시와 전주비빔밥축제조직위원회는 올해 축제에 보다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한국관광공사의 8개 외국어 홈페이지와 13개 해외 SNS채널을 활용해 비빔밥축제를 홍보하고, 서울 남산타워에는 LED전광판과 안내데스크 발광포스터 등을 통해 전주비빔밥축제를 소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왔다.

선거현 축제 조직위원장은 "맛, 멋, 흥이 함께하는 음식 축제 2018 전주 비빔밥축제에서 준비된 개성있는 비빔밥과 다양한 음식, 공연, 체험 그리고 즐거움을 보다 많은 시민과 관람객이 함께 마음껏 맛보고 즐기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양원 전주 부시장은 "올해 전주비빔밥축제는 참여한 시민과 관광객, 해외 초청인들이 다양한 음식을 맛보며 삶의 즐거움을 느끼고, 일탈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축제로 준비한 만큼 많은 분들이 축제장을 찾아 함께 누리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

전주시가 저소득층 에너지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로 했다.

시는 17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에너지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접수 받는다.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전기와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등 난방에너지원을 선택적으로 구입·사용할 수 있는 실물카드 또는 가상카드(요금차감)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 중에 만65세 이상 노인이나 만5세 이하 영유아, 1~6급 등록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가구다.

특히, 올해부터는 중증질환자와 희귀난치성질환자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에너지 바우처는 오는 11월 8일부터 내년 5월 말까지 총 7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 중 변동사항이 없는 가구는 별도의 재신청 없이 올해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가구원수 변동이나 전출입자 등 변동사항이 있는 대상자는 다시 신청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수를 고려해 1인 가구 8만6000원, 2인 가구 12만원, 3인 이상 가구 14만5000원으로 차등 지원된다.

한편, 에너지바우처 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청 주거복지과(063-281-2445)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로 문의하면 된다. /송효철 기자

재해예방사업장 현장점검

전주시가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나섰다.

16일 전주시에 따르면, 김양원 전주시 부시장은 지난 15일 진북동 어은·도토리골 일원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중인 어은 재해위험지구 현장 방문, 사업진행상황에 대해 청취하고,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했다.

어은 재해위험지구는 집중호우시 하천 범람 등 자연재해위험이 높아 재해 위험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달 중 완공을 앞두고 있다.

김 부시장은 이날 현장점검에서 △공사현장 주변 안전관리 상태 △공사 안내관, 방호책 등 안전시설 설치 여부 △민원불편사항 등을 집중 점검했다. /송효철 기자

"한옥마을 매출문제 해결, 143타워복합개발이 답"

자광 전은수 대표, 어진포럼 초청 상생방안 모색

한옥마을 연계협력 관광 상품 개발도 제시

전주 대한방직터에 143초고층 빌딩 건설을 추진중인 주식회사 자광의 전은수 대표는 지난 15일 '전주 한옥마을 어진포럼'에 초청돼 사업 설명 및 한옥마을과 상생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전은수 대표를 비롯해 관계 직원들과 어진포럼 회원 등 40여명이 참석해 전주 143타워복합개발로 인한 시너지 효과 등에 대해 설명하고 토론했다.

설명회에 앞서, 조문규 어진포럼 대표는 "전주 한옥마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전복에서 가

장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전주 143익스트립타워 복합개발계획'과 한옥마을과의 상생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대표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관광명소로 손꼽히고 있는 전주 한옥마을의 연간 관광객이 1100만 명을 돌파하였는데 상대적으로 매출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전주 143익스트립타워' 복합개발과 한옥마을의 연계협력 관광 상품 개발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대표는 "타워복합개발의 시너지가 지속 가능하도록 지역기반의 관광시장 형성과 더불어 전주

시의 최대 과제인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업체 공사참여로 수익이 도민에게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데 온 힘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문규 대표는 "전주 143익스트립타워'와 한옥마을을 한국 관광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전주관광 추진협의회'를 구성, 차별화된 관광콘텐츠 및 지속 가능한 관광개발 방안을 마련하자"며 제안했다.

이밖에, 이날 전은수 대표와 한옥마을 어진포럼 회원들은 전주의 아름다움을 대내외에 널리 알릴 많은 관광객들이 전주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상품 인프라 구축과 특색 있는 관광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짐했다.

/송효철 기자

카카오 카풀 반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택시 일부 휴업 예고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 내일 서울 개최 따라

전주 개인택시 종사자들 참여... 전체 2339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카카오 카풀 도입을 반대하며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가 오는 18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게 된 데 따라, 전국 3만명 이상의 택시 종사자가 참여하는 결의대회에 전주 개인택시 종사자들이 참여하면서 전체 2339대의 휴업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교통불편이 예상되는 가운데 도내 법인택시 조합(21사, 1521대)은 회사별로 자율적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는 전국체육대회 기간 등을 고려해 택시 이용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택시 조합 측에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택시의 일부 휴업에 따라 시내 버스 이용과 자전거 이용하기 등을 아파트 안내 방송, 택시버스 승강장의 안내문 부착 등을 통해 홍보한다.

장병호 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자가용 함께 타기 등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며 "택시 휴무에 따른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김태홍 스포츠 이카데미

http://www.kimsleports.com

CEO 김 태 홍

서바이벌

레프팅 / 카약

스키 / 보드

ATV / 버기카

펜션 / 이벤트

Phone. 063-323-8000-1

Fax. 063-323-8000-1

Mobile. 010-3680-2973

E-mail. skijump77@hanmail.net

A. 전북도 무주군 무주읍 무금로 312(용포리 485-2)

대표 약력

일본인 스키 및 점프선수활동
전국 신인 선수권 대회(금메달)
국제대회 디스 잡기 및 우승
동계올림픽 국가대표 출전
국가대표 코치 역임
일본 스포츠 국제대회 참가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NSL/NSL2)취득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인베르티 지역 취득
응급처치 요원 자격증 취득
레프팅 가이드 자격 취득
수상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취득
연)김태홍 스포츠 이카데미 대표

